

# 編 修 有 感

宋 吉 永  
(本學會 編修委員長)

지난 1월부터 학회 편수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된 후 1년만에 걸쳐서 학회지 및 논문지의 편수실무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느꼈던 점, 그리고 회원여러분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하고, 충고해준 점에 대답하면서 앞으로의 학회지 발전과 충실화의 길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학회가 벌이는 사업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 학회지 발간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못지않게 많은 편수의 논문과 기술 관련 원고가 투고되어 순조롭게 각각 12권씩의 회지 및 논문지를 펴낼 수 있었다는데 대하여 우선 편수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편수위원회에서의 중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회지내용을 알차게 하고 논문의 質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점에 있었으며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도 했습니다만 막상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自省評價해 보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않고 더욱 개선되었으면하는 아쉬움을 남긴점도 적지않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회는 회원수가 5000명에 달하는 국내 굴지의 大學會로서 특히 최근 에너지 및 전기사업의 눈부신 발전과 기술혁신에 힘입어 우리 학회지에 대한 주변에서의 기대와 관심은 전에 없이 더 높아지고 있느니 만큼 저희들로서는 여러가지로 더욱 큰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많은 회원들은 각기 직종이 다르고 다양한 현업 일선에서 관심을 갖게되는 분야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가령 대상분야가 같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나 수준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회지를 편

수해 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회지내용에 매력어 없고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오래전부터의 숙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필자는 우선 이 문제는 현재와 같은 受動的인 편수체제로부터 보다 많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협조할 수 있는 能動的인 편수체제로 탈바꿈하여야만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곧 회원 여러분이 회지에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찾는 데에서부터 모든 실마리가 풀려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회원여러분의 바람과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편수내용의 개편, 참신하고 다양한 정보수집, 제공의 활성화, 그리고 오늘날 상설되어 있는 회원과의 피이드백 기능을 되살린 회지의 평가 시스템 활용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새해부터 이들을 적극 반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論文誌에 관해서는 우선 그 質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이 論文誌야말로 우리 학회의 기술수준이랄까 능력을 상징하는 얼골격인 것인데 이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학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으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近年에는 외국학회와의 학술정보교환 계획에 의해 우리 논문지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조회도 늘고 있어서 그야말로 기술연구국제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움직임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제출하는 논문은 그야말로 정성어린 연구업적인 것이며 논문지는 그 공표기관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근래에 와서는 논문의 편수에 대한 회원의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 까지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의견의 주된 것을 보면 대체로 논문게재까지의 소요기일이 길다거나, 심사가 까다롭다는 것

으로 압축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편수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전자는 심사기간의 단축화라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그 대응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후자 역시 심사제도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그 개선책을 모색중입니다.

아무튼 논문지에 게재될 논문은 전기학회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내용과 수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 논문의 질적향상 문제는 앞으로라도 계속 투고자와 심사자들이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 간단히 현행 심사제도를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투고된 논문을 편수위원회에서의 합의에 따라 해당분야의 두분에게 심사의뢰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가 두분다 게재되므로 나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1, 2, 3, 4로 나누어지면 한번 더 신중을 기한다는 뜻에서 앞서 나온 심사의견을 첨부해서 다시 새로운 한분의 심사자에게 재심의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기간의 중복으로 심사기일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밖에도 당초의 심사과정에서 질의나 조회에 대한 투고자의 회신이 늦어져서 시일이 지연될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사무국에서는 항상 심사기일을 명시해서 심사자측에서의 시간지연이 없도록 심사기일 엄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지만 한편 투고자측에서 질의나 조회를 받았을 때 신속히 회신해 주기 바람에 이때 제시된 질의사항을 누락없이 회신하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재조회등으로 두번 세번 원고가 왕복하게 된

다면 심사기일은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시간단축을 위해 조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편수회의는 원칙적으로 매달초(금요일)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때 모든 심사의뢰, 재심의뢰, 질의사항심의 판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시한에 맞추어서 논문제출이나 질의회신이 당도하게 한다면 논문게재의 기일단축에 상당한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밖에 보다 근원적으로 논문심사의 공정과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개선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령 심사위원위촉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을 기해서 심사위원 선정을 대학별, 지방별, 연령별, 그리고 과거의 심사실적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실 최근의 편수회의에서는 논문심사위촉에 앞서 이러한 안배문제에 더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원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마침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편수위원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보다 능동적이고 활성적인 편수체제재편의 좋은 기회로 삼고 현재 몇가지 개선방안과 함께 그 인선작업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필자의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구성될 편수위원회는 회원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인덕과 많은 경험을 쌓은 인사로 보강되어서 회지와 논문을 통하여 우선 무엇보다도 학회가 보다 친근한 존재로서 회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도록 한다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남은 1년동안을 새로운 각오와 의욕을 가지고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